

투데이 칼럼

작은실천으로 안전속에 포근한 겨울을

겨울나기 준비를 하기 바쁜 이맘때가 되면 뉴스에서 화재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가정에서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장판류, 전기난로 등 다양한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최근 5년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전기장판류 화재 1위가 전기장판, 2위 전기매트, 3위 전기요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는 전체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전기장판류의 작은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유용한 전기제품들이지만 우리의



김 일 선
무진장소방서장

사소한 무관심과 부주의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다.

올해도 소방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화재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119 안전체험 한마당 및 불조심 홍보현수막 게시, 화재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민간 주도형 화재예방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겨울철 안전대책 주요추진 사항중 하나로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을

펼친다.

난방용품 등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불조심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첫째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전기매트를 처음 사용할 때는 1~2일 정도 정상작동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둘째 전기매트 위나 밑에 이불을 장시간 깔아놓지 않는다.

셋째 온도조절기에 충격이나 가열시 순간전압이 높아지거나 기능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자동차 온도조절기나 자동차 단장치가 있더라도 장시간 집을 비울때는 전원을 차단한다.

다섯째 집속불량, 합선의 원인이 되는 접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내부전선 손상방지를 위해 말아서 보관한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코드나 열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며, 전선을 덮고 있는 가연물질이 발화되어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는 작은 실천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모두가 안전속에서 포근한 겨울이 되길 희망해본다.

독자제언

여행을 떠나기 딱 좋은 계절, 안전한 여행 떠나기

9~11월 가을, 하늘은 높고 산은 울긋불긋 여행을 떠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각종 축제들이 열리기도 하고, 각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 차량의 이동량이 증가한 만큼 교통사고 사망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행락철인 9~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보자. 첫째, 장거리 운전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졸음운전의 사망률은 과속운전의 사망률보다 2.4배가 높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졸린다면 반드시 졸음쉼터에서 쉬어 눈 깜짝 할 새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해야한다.

둘째, 안전벨트는 전 좌석이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올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자동차의 충돌 사고로 인한 충격은 5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비슷하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부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셋째, 안개 낀 도로에서는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가을철에는 큰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행 중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개 낀 도로를 운행할 때는 앞 차량반드시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전세버스는 대열운행을 자제해야한다. 가을철 고속도로에는 단종구경을 떠나는 관광버스가 줄을 잇는다. 대열운행은 안전거리 확보가 되지 않아 급정지 시 추돌 가능성이 높고, 후방차량이 도로 앞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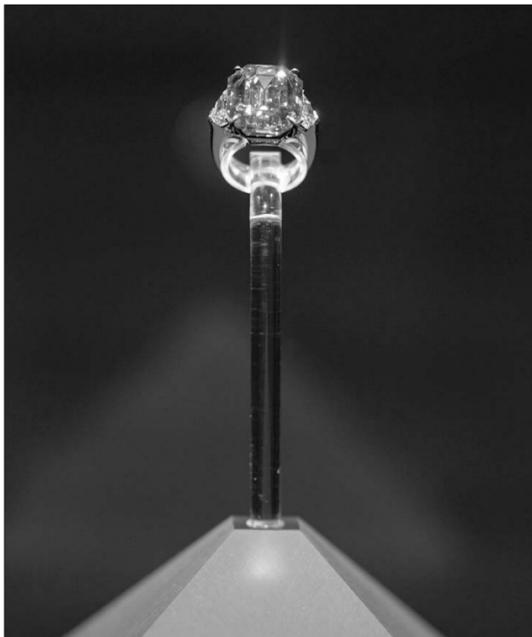
술을 마신다면, 절대 운전대는 잡지 않았으면 한다. 경찰청에서도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만 피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라는 인식을 국민모두가 가졌으면 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사고 예방법을 꼭 지켜서 사고 없는 행복한 가을여행이 되었으면 한다.

이지원 남원경찰서 경무과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계최대 핑크다이아, 스위스경매서 567억원에 낙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1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의 핑크 다이아몬드 '핑크 레거시'(Pink Legacy)가 수수료를 포함해 500만달러(한화 567억원) 이상의 가격에 낙찰되어 핑크 다이아몬드는 캐럿당 가격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사설

전북도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전북도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도내 대다수 청년들이 아직도 '헬 전북'을 말하고 있다. 지역의 낮은 고용률 때문에 탈전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답답한 것은 열 명중 네 명꼴로 비경제 인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열핏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을 것을 두고 그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말할 이도 있을 지 모르겠다. 일하기 싫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이들은 일반 실업자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아예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점차 취업할 희망이라도 있지만 취업을 포기한 자는 앞으로도 계속 실업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도내에 관청은 일자리가 더 많아야겠다. 관청은 일자리 마련의 책임은 전북도를 비롯해 공기업들에게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다. 다들 경쟁성을 가지고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언론 홍보용으로 일자리를 만든 척했다가 그만 두기를 반복하는 것은 청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

고 상처를 내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와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은 눈을 떠야 한다. 도내 언론사들의 보도를 면밀히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역의 취업률이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니 답답한 세월이다.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지적하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 고용이 평가를 받으려면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가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는 거라야 한다. 기간제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관청은 일자리가 아니다.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취업의지를 상실한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청은 일자리 만들기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의 취업률은 말이 안 된다.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된 이들은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일지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린 것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 예산 7조원 시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도지사와 브레인들은 생각이 많아야겠다. 지방에 전북도가 요청한 액수는 7조6661억 원인데 반해 정부 예산안은 6조5139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그해 전북도는 무슨 큰 성과라도 낸 것처럼 들뜬 기분을 감추지 않았었다.

부처 예산이 2159억 원이 늘은 것과 새만금 쪽 예산이 전년보다 7.2% 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한 까닭이다. 그리고 국회 단계에서 역대 최고액이 예산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의 정서는 결이 다르다. 수년 째 소폭 증액 예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도민들은 불만이 크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도 7조원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6조8천억 원이 되는 6조9천억 원이 되는 도민들은 섭섭할 터이다.

전북도는 7조원대의 예산으로 발전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 제 몫을 챙기는 역척스러움이 2% 정도 부족해 보인다.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척스러움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건만 그게 없는 것 같다.

너무 앞선하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북도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7조 원 예산 확보가 미심쩍다면 더 뛰어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도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나 우리 지역은 발전 속도가 너무 더디다.

나후 지역을 언급할 때마다 전라남도도 함께 단골 손님이 되고 있으니 답답한 세월이다.

전북도는 발전 속도를 내야 한다. 예산 증액의 명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아내야 한다.

지금은 뛰어야 할 때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